

# 소프트웨어설계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명:	HomeMedic
9 조	팀원: 양희성, 박승현, 김동희, 유태훈

## 1. 목적 및 필요성

전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 노출 되어 인류의 적은 바이러스임을 깨닫고, 추가적으로 전염성이라는 바이러스의 속성에 반하는 언택트 시장을 겨냥한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생각해함. 이후 나온 솔루션이 원격 의료서비스이고, 이 것이 현재의 정책에서는 불법으로 해석될 수있는 여지가 많다. 하지만 조원이 격오지에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원격의료서비스를 체험을 했고, 이번 년도 3월에 대구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격진료 및 배달 약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려함.

우선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지않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감소하고, 병원에 가기 위한 시간, 교통비용 등 여러가지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서 도움이 된다. 병원의 입장으로는 최근 병원 내원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 해소, 환자 대기실 등의 공간 효율화, 의료 인력들의 감염 위험 감소, 의사들의 진료 효율 극대화의 효과가 있다.

## 2. 내용 및 추진 방법

### 구체적인 기능 -

(1) 재진 환자나 만성 질환자 입장 : 진료 1일전 의사들이 작성해놓은 문진표를 양식에 맞게 서술하여 제출한다. 이후 의사가 문진표를 읽고 대면진료를 할 지, 비대면 진료를 할 지 선택하여 환자에게 앱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비대면진료의 경우는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약국을 선택하고, **배달을 통해서 약을 수령 받는다.**

(2) 첫 진료 환자 입장 : **첫 진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면진료를 받는다.**

(3) 의료진 입장 : 각 질병 별로 작성해둔 문진표 양식을 앱에 업데이트해둔다. 이후 문진표를 작성한 환자의 평소 건강 데이터와 함께 검토를 한 후에 진료 방식을 앱으로 환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비대면 진료라면 원격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전을 앱에 전송.

(4) 약국 입장 : 전달 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을 제조한 후에 라이더들에게 약을 전달후에 앱을 통해 환자에게 복약 지도.

### 시장동향 -

현재시장에 ‘배달약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이들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구현해야하며, 현재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법에 맞게 유동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오른쪽의 Figure.01은 ‘배달약국’사이트의 내용이며 그들의 서비스는 배달이 가능한 약국에 병원에서 팩스를 통해 처방전을 보내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많은 구조여서 서비스 중지상태입니다. 다음은 ‘배달약국’



“저 역시도 이 서비스가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배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하고 약사님들 못지않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한시적 지침에 허용되는 범위인지 명확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문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자문 및 의견조회와 담당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를 통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경우, 배달’ 이 현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그림은 “배달약국”앱의 등장으로 약사들의 입장을 나타낸 기사이다.

## ‘배달약국’에 발끈, 서울·경기약사 “불법명백, 처벌 촉구”

김강승기자 | 승인 2020.09.03 22:43 | 댓글 0

의약품 배송행위는 엄연한 불법...가입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의·약대생 주축의 스타트업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배송 서비스 ‘배달약국’을 제공하는 데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각각 의약품의 ‘배달’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제휴약국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체에게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회원들에 문자를 보내 “배달약국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의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료법 개정이전 법 체계에서는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서비스가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 약사법,의료법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여 현재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 배달약국 앱 및 원격 의료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오진, 의료기록 관리 문제, 원격 진료 가능한 환자들의 범주 설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시장 상황이다.

- ※ 개발 환경 및 툴
- ※ 팀원별 역할분담

### 3. 추진 일정

- ※ 간트차트로 작성
- ※ 전체 workplan은 요구분석(analysis)-설계(design)-구현(implementation)-테스트(testing) 순서로 진행할 것  
(애자일 개발방법의 경우 version별로 위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반복됨. 아래 예시 참고)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코로나로 인한 환자들의 내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난 해소
2.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감염 위험성 감소, 환자 대기실 공간의 재활용 및 공간 절약.
3. 환자들의 편의 극대화, 감염 위험성 감소.

4. 의사들의 진료 효율 극대화.

5. 원격의료 활성화로 인한 환자 건강 관리의 체계화, 실시간 모니터링

## 5. 협업 URL (GitHub Repository)

※ 팀장 계정 repository (팀원 collaborator 등록)

※ 전체 프로젝트 진행 자료 (문서, 코드, 결과동영상 등) 모두 업로드 할 것

## 6. 참고자료

예상 경쟁사 사이트 : [www.pilltong.me](http://www.pilltong.me)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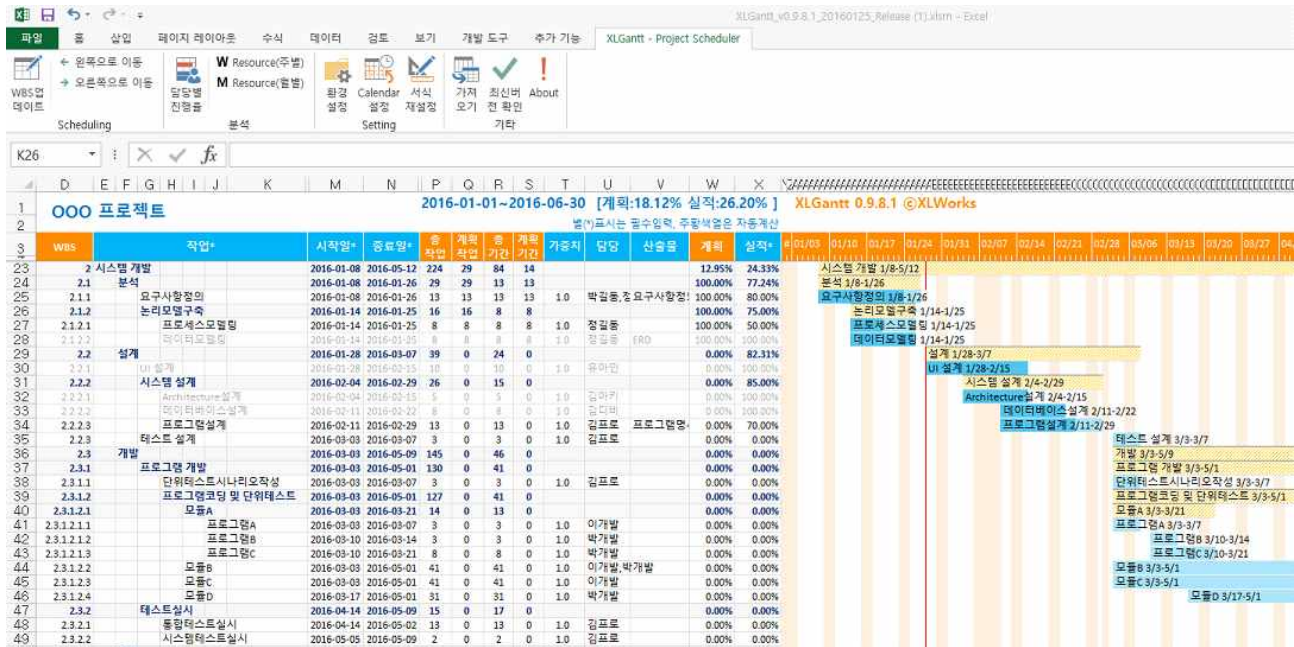
<https://www.moleg.go.kr/lawinfo> 법제처

- 전체 1~2페이지로 작성

- 파란색 작성요령 문구 및 간트차트 참고예시 삭제 후 제출

## <간트차트 참고 예시>

### - waterfall 개발방식의 경우



### - agile 개발방식의 경우

